

【서 평】

만주 개척이민사에서도 소외된 일본의 피차별부락민

- 高橋幸春, 1995, 『絶望の移民史 - 満洲へ送られた
「被差別部落」の記録』, 毎日新聞社 -

최 경 순*

I

일본 이외의 타국에 이주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얻은 일본인이나 그 자손들을 이른바 ‘닛케이진(日系人, 이하 일계인)’이라 한다. 일본인의 해외이주 사례로 흔히 하와이 이민과 브라질 이민 등이 논의되곤 하는데, 그 중에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이민자들의 후손은 브라질의 경제위기와 1990년 일본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인정법의 시행으로 체류와 노동이 가능한 ‘정주자’ 비자가 신설되면서 일본에 대량으로 입국했다. 남미 일계인 이민자의 증가에 비례해 각종 사회문제가 늘어나면서 일본에서는 일계인 이민자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졌고,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1990년대 후반에는 남미 이외 지역의 이민자에 대한 관련연구나 해당 지역 이민자 혹은 귀국자들의 증언록이 속속 출판되기도 했다.¹⁾

사실 일본인의 해외이민사를 논하자면 1945년 이전 제국주의 시기 국책

* 연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1) 2004년 10월 15일 일본 후지TV에서는 FNS(후지 네트워크 시스템) 다큐멘터리 대상(大賞) 후보에 오른 작품인 <가기에 낙원은 없었다-도미니카 이민, 고투(苦闘)의 반세기(そこに樂園は無かった-ドミニカ移民 苦闘の半世紀)>[제작 : 가고시마(鹿兒島) TV방송]를 방영하기도 했다.

사업으로 진행된 집중적인 대량이민으로서 ‘만주(滿洲)’이민을 빼놓을 수 없다. 1932년 만주국의 건국과 함께 일본사회에 ‘만주 봄’이 일면서 ‘왕도낙토(王道樂土)’라는 슬로건은 일본인들에게 만주이민을 부채질했고, 일본 각지에 ‘만주개척단(滿洲開拓團)’이 결성되었다. 전시경제의 궁핍상에 고통당하던 일본의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이들이 만주이민을 희망하며 개척단에 응모했고, 개척단에 입단한 이들은 만주 이주에 필요한 농업연수와 함께 군사적 훈련을 받은 후 만주로 건너갔다. 이처럼 만주개척이민은 국책사업이라는 성격상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개척단에 응모한 농업종사자들은 그들을 짓눌렀던 가난한 처지를 벗어나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특히 만주개척단에 지원한 피차별부락민(被差別部落民)은 일본사회에서 받았던 차별적인 대우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만주개척단을 통해 이주한 피차별부락민들은 만주 현지에서 일본 내지(内地)의 출신지에 따라 여러 개척단으로 나뉘었는데, 이들 중 구마모토현(熊本縣) 구타미(來民) 지역의 부락민들은 ‘구타미개척단(來民開拓團)’으로 만주에 정착해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나름 안정된 생활을 찾아가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지주의 땅을 빌려 소작하면서 먹고살기도 힘든 처지였으나, 만주에서는 자기 땅을 가질 수 있고 게다가 부락민으로서 일본인에게 차별받는 일도 없었으니, 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신천지(新天地)’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과 함께 평화롭던 구타미개척단에는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닥쳐 끝내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상은 오랜 기간 동안 묻혀 있었고, 이 사건을 추적해 전모를 밝힌 것이 바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책, 다카하시 유키하루(高橋幸春)의 『절망의 이민사-만주로 파송된 ‘피차별부락’의 기록』²⁾이다. 저자는 1950년 사이타마현(埼玉縣)출생으로 1975년 와세다(早稻田)대학 문학부를 졸업한 후 곧바로 브라질로 이주했다. 상파울로에서 발행되는 일제인 일본어신문 『Paulista』³⁾

2) 高橋幸春, 1995, 『絶望の移民史-滿洲へ送られた「被差別部落」の記録』毎日新聞社.

紙현 닛케이신문)에 3년간 근무하다 1978년 일본으로 귀국했고, 이후 자유기
 고가 겸 르포라이터로 활동했다. ‘다카하시 유키하루(高橋幸春)’는 필명(본명
 은 시게오(茂雄)인데, 『카리브해의 <낙원> - 도미니카 이민 30년의 궤적』
 (1987, 제6회 우시오(潮)논픽션상 수상)⁴⁾을 시작으로, 『창민(蒼民)의 대지(大地)』
 (1991, 제13회 고단사(講談社) 논픽션상 수상)⁵⁾ 『갈까 돌아갈까, 해외돈벌이 일본
 인』⁶⁾ 『일계브라질이민사』(1993)⁷⁾ 『도미니카이민은 기민(棄民)이었다』(1993)⁸⁾
 『회한의 섬, 민다나오』(1994)⁹⁾ 등 거의 매년 문제작을 왕성하게 집필해 왔다.
 소개한 작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자신의 브라질 이민경험을
 바탕으로 브라질·도미니카 등 이른바 남미 일계인 이민자문제를 비롯해,
 일본 전체의 이민사 분야, 그리고 피차별부락민 문제 등 이른바 일본사회의
 소수자(마이너리티) 집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나아가 저자는 일본정부
 의 이민정책이나 귀국자의 처우 등의 문제점을 환기하는 사회활동에도 참
 여했다.

II

책은 프롤로그와 후기 그리고 용어해설과 자료를 제외하고 본문 총 9장
 으로 되어 있다. 책의 순서는 구타미개척단의 비극적인 사건을 먼저 드라마
 의 한 장면처럼 그려낸 후, 장면을 전환해 만주이민의 역사와 일본 구마모

3) Paulista : 포르투갈어로 ‘상파울로 사람’이라는 의미. 참고로 일본에서 유명한 카페의 상호
 이기도 한데, 창업자가 브라질 이민단(移民團)의 결성에 힘썼던 경력을 가진 데서 유래한
 이름이며,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나 기쿠치 간(菊池寛) 등 당대의 문화인들에게
 도 사랑받았다. 출처 : 朝日新聞掲載「キーワード」の解説(2009.10.5 朝日新聞 夕刊 1 総合)

4) 高橋幸春, 1987, 『カリブの<楽園> - ドミニカ移民三十年の軌跡』 潮出版社.

5) 高橋幸春, 1991, 『蒼民の大地』 講談社.

6) 高橋幸春, 1992, 『行こか戻るか出稼ぎジャパン』 講談社.

7) 高橋幸春, 1993, 『日系ブラジル移民史』 三一書房.

8) 今野敏彦・高橋幸春, 1993, 『ドミニカ移民は棄民だった - 戦後日系移民の軌跡』 明石書店.

9) 高橋幸春, 1994, 『悔恨の島ミンダナオ』 講談社.

토현 구타미 지역의 상황을 서술한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터뷰와 각종 자료를 소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개척단 사건 관계자들의 현재(책의 집필 당시까지) 상황을 언급하며 끝낸다.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문체와 내용구성은 르포 작가로서 저자의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다만 서술의 시점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거나 내용상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본 서평에서는 일단 저자의 구성대로 따라가며 중복되는 내용과 용어해설, 부록 자료 등은 제외하기로 한다.

프롤로그: 저자는 르포라이터로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가장 주된 것은 피차별부락민의 차별실태 취재 경험이었다. 1975년 저자는 다민족 이민국가의 인종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브라질로 이민을 떠났는데, 이민을 떠나기 전에 브라질의 생활과 풍습 등을 미리 교육받는 연수센터에서 자신과 같이 브라질 혹은 파라과이 등으로 기술이민을 떠나는 청년들을 만났다. 그들 대부분이 이민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밝혔지만, 그 가운데 유독 한 청년만 “실연(失戀)해서 브라질에라도 가보려고…”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당시 저자는 작가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¹⁰⁾의 소설 『파계(破戒)』¹¹⁾에서 부락출신의 주인공 세가

10)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1872~1943): 일본의 시인, 소설가. 『문학계(文學界)』에 참가해, 낭만파 시인으로서 활약하다 『와카나슈(若菜集)』 등을 간행하며 소설가로 전업했다. 『파계(破戒)』, 『봄(春)』 등의 소설로 대표적인 자연주의 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일본자연주의 문학의 도달점이라는 『집(家)』, 조카와의 근친상간을 고백한 『신생(新生)』을 발표하기도 했다.

11) 『파계(破戒)』: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장편소설. 1906년 자비로 출판했다가 곧 매진되었고, 문단으로부터 본격적인 자연주의 소설이라 절찬 받았다. 하지만 이 시기에 도손의 딸 3명이 영양실조로 잇달아 사망했고, 이 때의 상황은 후에 『집(家)』에서 묘사되기도 한다. 『파계』는 도손이 소설로 전향한 최초의 작품으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는 이 작품을 “메이지 소설로서 후세에 전해야 할 명작”이라 평가했다. 1948년과 1962년에는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이지 후기, 피차별부락에서 태어난 주인공 세가와 우시마쓰(瀨川丑松)는 그의 출생과 신분을 숨기고 살기로 아버지와 약속(戒)하며 자란다. 그 약속을 굳게 지키며 성인이 된 우시마쓰는 소학교 교사가 되었지만, 같은 피차별부락에서 태어난 선배이자 해방운동가인 이노코(猪子蓮太郎)를 사모하게 된다. 우시마쓰는 이노코에게 스스로 출생을 밝히려 하지만 망설이던 차에, 학교에서 우시마쓰가 피차별부락출신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마침 이노코가 해방운동을 하

와 우시마쓰(瀨川丑松)가 미국의 텍사스로 떠나는 장면을 떠올렸지만, 저자에게 그런 일은 그저 소설에서의 일어나는 일에 불과했다.

브라질 이민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자는 피차별부락 출신자에 대한 차별실태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부락출신이라는 이유로 중매단계에서부터 거절을 당해 혼사가 깨진 3건의 결혼차별 사례가 있었다. 3건 모두 차별받은 사람은 여성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살, 나중에 두 사람도 미수에 그쳤지만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저자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20년 전 브라질 이민을 앞두고 만났던 그 청년의 말이 어찌면 단순한 실연이 아니라 ‘부락 출신자로서 차별을 피해 이주하는 것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혼차별 사건 취재를 계기로 저자는 생활 곳곳에서 직면하게 되는 부락 차별과 편견의 뿌리 깊은 실태를 실감하고 여러 자료를 조사하던 중, 전전(戰前)에 구타미에서 만주로 이주한 구타미개척단의 ‘집단지결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브라질에 가기 전 저자는 한국을 몇 차례 방문해 ‘내선결혼(內鮮結婚)’ 즉, 식민지 시절 일제의 결혼장려 정책으로 조선에 건너와 조선인 남성과 결혼해 살다가 해방 후에는 조선에 남거나 일본으로 되돌아간 ‘일본인 처(日本人妻)’들이 양국에서 모두 차별받고 버림받았던 실태를 취재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자는 고국을 떠나는 이주자들에게 ‘국가’란, ‘민족’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과 함께, ‘만주로 떠난 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신천지를 찾아 건너갔던 것인가’, ‘개척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어째서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인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1장 집단자결 : 만주로 이주했던 부락민 개척단 중에 특히 구마모토현에서 건너간 구타미개척단 사람들이 일본의 패전 후 인근 마을 중국인들의

장렬히 사망한다. 그 충격과 함께 동료들의 의심이 깊어지자 우시마쓰는 마침내 아버지와 의 약속을 깨고(破戒) 자신이 부락출신자임을 공개한다. 그 후 우시마쓰는 마을을 떠나 미국 텍사스 여행길에 오른다.

습격을 받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다 집단자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개척단장이 최후까지 항거하다 집단자결을 선택하는 상황이나, 그 와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살아남아 이 사건의 진상을 일본 내지의 고향사람들에게 전해 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 등은 묘하게도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의 기억과 오버랩 된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1945년 8월 13일 급작스럽게 구타미개척단에 전해진 관동군(關東軍)의 패배소식을 알리는 한 통의 전문(電文)을 시작으로, 8월 17일 개척단원들이 인근 중국인의 습격에 저항하다 집단자결로 막을 내리기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이수라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미야모토 사다요시(宮本貞喜)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여가 지난 1946년 9월이었다.

2장 만주이민 : 여기서는 시선을 잠시 돌려 구타미 지역을 비롯한 일본의 이민사를 개관하고, 구타미 지역의 가난한 상황과 만주이민사에 대해 개관한다.

1) 미국-브라질 이민사 : 메이지(明治) 원년(1876)에 하와이와 괌으로 첫 해외이민(이들을 원년자(元年者)라 부른다)을 보낸 이래, 1907년 ‘일미(日美)신사협정’으로 미국 이민이 제한되자 대안으로 떠오른 곳이 브라질이었다. 제1회 브라질 이민모집 안내서에는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브라질을 가리키던 한자음차(伯刺西爾,巴西) 대신 ‘즐겁게 머무는 곳(舞樂而留)’이라는 의미의 조어(造語)가 사용되었다. 이 안내서는 이민모집회사인 황국식민회사(皇國植民會社)가 경시총감·외무성통상국의 허가를 얻어 배포한 이른바 정부 관인문서로 “많은 수입을 저축할 수 있다”는 선전과 함께 ‘돈이 되는 나무’ 즉 ‘커피’에 대한 문구가 적혀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후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본이 중국대륙에 세력을 확대하고 만주국을 세우면서 새로운 이민지로서 만주가 떠오른 것도 이민 붐을 촉진하는 계기였다.¹²⁾

12) 만주사변과 만주국의 건국으로 일본에서는 이른바 ‘만주 붐’이라 할 만큼 만주지역에 대

2) 구타미 지역의 상황 : 구타미는 오래 전부터 차별에 시달리고 궁핍한 생활을 영위한 피차별부락으로, 지역민들이 빈곤을 벗어나는 길은 해외로 나가 성공하는 것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하와이나 브라질 이민에 동참했다. 토양이 척박하고 물기가 많은 토질(濕田) 때문에 재배가능 작물이 제한되었기에, 에도(江戸)시대부터 부채 등을 만드는 부업이 가계소득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또 외지에서 날품팔이(日雇)를 하더라도 피차별부락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이 지역의 평균수명은 당시 기록에 의거해 산출하면, 주변 지역에 비해서 절반 밖에 되지 않았고 유아사망률도 훨씬 높았다.

메이지 20(1887)년 이래, 피차별부락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행되었던 부락개선운동(部落改善運動)이 차별의 원인과 책임을 부락민에게 전가했던 것과 달리, 1922년 3월 부락민의 자주적 해방을 외치는 전국수평사(全國水平社)가 결성되었다. 수평운동은 곧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전국수평사 창립 이듬해인 1923년 7월 구마모토에서도 구마모토수평사대회가 열렸는데, 결과적으로 구타미 지역에는 수평운동이 확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부락개선운동이 강세를 보였다. 그 까닭은 당시 전국수평사의 부락해방운동과 대립각을 세우던 응화단체 중앙응화사업협회(中央融和事業協會)가 ‘차별이달

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당시 일본-조선 간의 해운(관부연락선 등), 조선의 철도(경부선, 경의선 등), 만주의 철도(만철 등)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은 일본인들을 만주로 실어 나르는 주요한 물적 인프라였다. 이 시기 일본제국주의 하에 일본인과 조선인의 만주여행이나 만주시찰, 혹은 이민 등을 다룬 연구가 상당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농업이민을 주로 다룬 滿洲移民史研究會, 1976,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移民』, 龍溪書舎. 등을 비롯해 2000년대 이후 만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 논문집으로 中見立夫 外, 2004, 『滿洲とは何だったのか』, 藤原書店. 등이 눈에 띈다. 그 가운데 中見立夫(2004)에는 국책으로 만주에 파송된 피차별부락민을 다루고 있는 서평 책의 저자 다카하시 유키하루(高橋幸奉)의 글도 실려 있다.

만주로의 일본인 개척이민에 대해서 일본의 연구 성과로는 塚瀬進, 2002, 『滿洲國-民族協和の實像』 吉川弘文館, 199~212쪽 참조.(지면관계상 일본에서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만주개척단에 관련된 이민경험자의 증언록과 연구논문, 단행본 등 상세한 목록은 생략). 한국의 연구 성과로는 김기훈, 2002, 『일제하 滿洲國의 移民 政策 研究 試論 : 일본인 移民 「獎勵」·朝鮮人 移民 「統制」 정책 형성의 배경』 『아시아문화』제18호; 임성모, 2008, 『근대 일본의 국내식민과 해외이민』 『동양사학연구』103. 등 참조.

것이 없다'고 인식한 구타미 부락의 지도자 그룹을 끌어들이면서 구타미 지역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만주이민사 : 만주이민은 만주사변이 일어난 이듬해, 193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해부터 1935년까지는 '시험이민', 1937년부터는 대량이민의 송출이 시행되었다. 국책으로서의 만주이민은 관동군·척무성(拓務省)·만주국 정부의 주도로 실행에 옮겨졌는데, 그 기본계획안은 1932년 2월 관동군이 작성한 '이민방책안(移民方策案)' '일본인이민안요강(日本人移民案要綱)' '둔전병제이민요강(屯田兵制移民要綱)'의 세 가지였다. '만주개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도미야 가네오(東宮鐵男) 대위와 또 다른 브레인 가토 간지(加藤完治)와 같은 이들은 "만주의 이민자는 '오른손엔 총, 왼손엔 가래(鋤)'를 들고 일어난 황국(皇國)의 전사(戰士)"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척무성은 제1회 '만주이민안'을 작성해, 1932년 3월, 제61임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미리 각의(閣議)에 의견을 구했는데, 당시 하타 도요스케(秦 豊助) 척무대신(拓務大臣)과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대장대신(大藏大臣)에 의해 묵살된다. 각의승인을 얻지 못한 배경에는 당시 만주에 아직 '치안'문제가 남아있다는 것,¹³⁾ 만주사변 전에 시행된 이민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것 등이 있었다. 그 얼마 후 5·15 사건¹⁴⁾ 일어나 다카하시 고레키요가 경질되자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의 중개로 가토가 도미야와 만나 이민계획 추진에 합의했고, 관동군으로부터 토지의 제공을 약속받은 척무성이 제출한 '1천만호 이민안'은 각의의 승인을 얻어 의회를 통과했다.

13) 하타 도요스케(秦豊助), 1932, 『滿蒙新天地の開拓と我國民の使命』 『府邑面雜誌』 Vol.2 No.5 府邑面雜誌社. 이 글에서 하타는 "제국은 만몽(滿蒙)에 대해 영토적 야심이 없고, 치안을 완전히 유지하고, 조약상의 기득권을 확보하면 좋을 뿐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14) 5·15 사건 : 만주사변 이후 군부내 청년 장교들과 민간의 국가주의 단체들은 국가 원로, 정당, 재벌 등의 지배층이 국가 위기와 국민의 어려움을 소홀히 하고 당리당략에 빠져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수립. 1931년 이미 육군의 급진적 국가개조 단체인 사쿠라카이(櫻會)가 중심이 되어 군부 내각수립을 목표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실패한 적 있음. 결국 1932년 5월15일 극단적 우익단체인 '혈맹단'이 정당, 재벌 타도를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킴. 해군 청년 장교 10명, 육군 사관후보생 11명, 그리고 민간 농본주의자 일파로 구성된 이들은 수상 관저·정우회 본부·경시청·일본은행을 습격하고, 당시 수상 '이누카이 쓰요시'를 살해했다.

1929년의 세계공황 이래, 국민생활은 밑바닥으로 떨어져, 도시에는 실업자가 넘쳐났다. 제1차 세계대전 이래, 농가의 빚은 늘어나 농촌에서는 딸을 팔아 돈과 바꾸거나 술집에 나가 일하는 여성이 많았다. 일본 전국에 이처럼 만주이민의 예비군이 될 만한 가난한 농민이 많은 상황 하에 11개 현에서 모집된 제1차 시험이민 423명은 1932년 10월 3일 일본을 출발했다. 이들은 도중에 반만(反滿)항일무장부대의 습격을 받아 상륙이 하루 연기되기도 했다. 이민을 맞이한 도미야 대위는 “제군은 최초 선구자이다. 제군들이야말로 명예로운 북만주의 개척자이다. 일본의 농민을 대표해 개척의 선구자가 된 것이다. 토비들은 제군들이 지도해 구제할 수 있다. 그대들은 자력으로 개척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격려했지만, 제1차 시험이민자들은 이민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비적의 습격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비적의 습격에 시달리며 무장전투를 벌이는 와중에 전사자가 나오자 “속았다”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1933년 7월 제2차 시험이민 455명이 만주에 건너갔고, 이들 또한 비적의 습격을 받은 가운데 1934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토룡산(土龍山) 사건’¹⁵⁾이 일어났다. 1934년 4월에는 제3차이민이 모집되었다. 제3차이민 모집은 제1.2차 때와 달리 이민자격을 확대해 추고쿠(中國)와 시코쿠(四國) 등 따뜻한 지역 거주자도 포함하고, 재향군인 이외에 일반인 등 259명이 이주했다. 이는 제3차 때부터는 만주의 치안이 관동군에 의해 강화되어 무장이민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1935년 7월부터는 개척단의 가족을 불러들이는 것도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1935년 5월에는 제4차만주농업이민모집요강이 발표되어 본격적인 대량이민이 시작되었다. 제4차 시험이민은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서 이

15) 토룡산 사건 : 1,000명에 가까운 일본의 만주이민자 때문에 토지를 빼앗긴 만주 지린성(吉林省) 의난현(依蘭縣) 주민들은 자경단장의 지휘로 일본의 침략에 대한 항일운동을 전개했는데, 주민 700명으로 구성된 자위군의 총지령부가 토룡산에 세워졌다. 그들은 일본군에 격렬하게 저항했고, 만주 제2차 이민은 당초의 이주지를 변경할 정도였다. 전투는 2개월에 걸렸지만, 일본군이 관동군 부대를 파견해 1934년 5월 들어 차츰 진압되었다. 토룡산 사건의 주요 원인은 일본군에 의한 강제 토지매수였다.

민자를 모집해 400명이 만주에 건너갔고, 1차 이민 때 이민자격을 재향군인으로 한정했던 규정이 빠졌다. 기존 모집요강과 다른 점은 이민 1호당 배분되었던 토지의 면적을 명기한 것이다. 최소한 10정보(10町步, 1정보는 3천 평, 10정보는 3만평)의 토지보장 문구는 일본의 소작농과 영세농민을 매혹시킬 만한 조건이었다.

게다가 제5차 이민부터는 ‘시험이민’이라는 글자도 삭제되었다. 과잉인구 문제의 해결책으로서의 이민이라는 점에서는 만주이민이 하와이·북미·중남미 이민을 대체한 것은 아니지만, 만주이민이 다른 이민과 다른 점은 ‘오족협화(五族協和)’의 핵심으로 ‘민족협화’라는 사명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동군 식량보급 등의 병참기지이자 병사의 공급원·자원개발·국경경비 등의 역할을 담당한 ‘가래의 전사’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3장 구타미(來民) : 만주로의 대량이민이 개시되고 그 물결 가운데 구타미계척단도 밀려들어 가고 있었다. 피차별부락 구타미 지역민들의 생활은 차별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당시 구타미 출신으로 만주로 건너갔던 이들의 사례를 통해 구타미 지역민이 만주이민에 지원하게 된 상황을 설명한다.

모리야마 신이치(森山新一)의 사례. 5명 형제의 막내아들로 가난한 살림 탓에 숙부에게 맡겨져 어려서부터 노예처럼 일하다가 징병 때문에 21세가 되어 집을 떠났다. 제대 후 비료회사에 근무하며 토지를 빌려 소작을 병행했지만, 소작료를 제하고 남은 것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고, 자기 토지를 꿈꾸던 차에 만주계척단 모집 소식을 들었다. 그는 “만주로 가는 것은 꿈이었다”고 증언한다.

가와카미 겐지(川上謙次)의 사례. 그는 10형제 중의 3남으로, 14살 때부터 탄광서 일했는데, 현금수입과 고액 일당을 찾아 구타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탄광으로 몰려갔고, 여기엔 강제연행된 조선인 노동자도 많이 있었다. 탄광에서도 피차별부락 출신자와 조선인은 차별을 받았는데, 농번기에 구타미로

돌아와서도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그는 경찰의 감시를 피해 친구 3명과 홋카이도로 건너가기 위해 시모노세키(下關)에서 무임으로 고베(神戸)까지 갔다가 체포되어 돌아왔는데, 되돌아올 때 만주개척단의 이야기를 들었다.가와카미의 아버지도 젊었을 때 멕시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기에 만주행을 결심했다. 그밖에도 여러 증언사례에서 공통되는 만주이민의 동기는 ‘차별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선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었다. 자신들이 차별받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지, 부락민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가난이 모든 차별의 원인이었고, 가난에서 벗어나 차별에서 해방되는 길은 만주개척단밖에 없었던 것이다.

1925년 세계공황은 일본의 농촌도 습격했고, 피차별부락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구타미 지역은 인구에 비해 부족한 경지, 과잉인구를 흡수할 산업기반의 부재 등에서 그때까지 유일한 출구가 남미(南美)이민이었으나, 1941년 브라질에서 일본이민의 수용을 중지하자 그마저도 출구가 막힌 상황이었다. 그러한 때 만주이민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다.

일본의 이민이 시험이민에서 대량이민 시대로 이행한 하나의 계기는 1936년 2·26사건이었다.¹⁶⁾ 이 때 만주이민에 소극적이었던 다카하시 고레키요가 쓰러진데다, 2·26사건 후 발족한 히로타 고키(廣田弘毅) 내각이 1936년 8월 발표한 7대 국책 가운데 ‘20년간 100만호 송출계획’이란 만주이민이 포함되어, 척무성의 사업은 날개를 단 격이었다. 이 국책은 관동군이 작성

16) 2·26사건 : 1936년 2월 26일 일본 육군의 황도파(皇道派) 청년장교 1483명이 일으킨 반란사건이다. 청년장교들은 2월 26일 당시 내각 총리대신인 오카다 게이스케(岡田啓介)로 착각해 그의 의제(義弟)를 살해하고, 이후 내무대신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대장대신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를 살해했다. 2월 27일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28일에는 원대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반란군은 천황 보좌를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고 있었는데, 천황이 복귀 명령을 내리자 반란의 근거를 잃은 이들은 29일 귀순하였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당시 반란 가담자들은 재판을 통해 사형 등의 처벌을 받았는데, 순수 파시스트라고 불린 극우성향의 지식인이자 유일한 민간인 반란 가담자였던 기타 잇키(北一輝)도 처형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군국주의 성격의 군인들이 일으킨 이 쿠데타 사건은 1930년대 이후 일본이 군국주의화되어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 ‘만주농업이민 100만호계획안’을 골자로 한 것으로, 토지가 없는 빈농이나 가난한 어민, 도시 실업자 등의 구제를 위한 것이었다. 모집요강에는 ‘같은 지방에서 집단적으로 다수의 요원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과 이주비용 토지의 확보에 대한 정비요강에는 용지의 취득을 ‘염가’로 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는 중국인의 토지를 싼 값에 매수하는 것을 밝힌 것으로 중국인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고, 구타미개척단의 비극은 이미 이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과 함께 관동군은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滿洲開拓政策基本要綱)’을 발표한다. 여기서 만주이민은 일본만의 국책이 아니라 ‘일-만 양국의 일체적 중요국책’이라 규정한다. 만주국과 항일운동이 연계되는 것을 우려해 일본과 만주의 일체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만주이민은 ‘동아신질서건설’을 위한 거점 확립이자 ‘민족협화’의 달성과 ‘국방력의 증강·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일본의 농촌의 토지공핍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4장 분촌(分村)계획 : 중일전쟁 후의 대량이민에서 최무성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분촌(分村)계획이었다. 일본 내지의 같은 마을 인원을 집단으로 만주에 그대로 옮겨 분촌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분촌계획과 함께 시작된 구타미개척단의 이주를 다룬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만주이민 송출이 본격화하는데, 전쟁의 심화와 함께 일본 정부는 1939년부터 전국 31개 부현에 만주이민과 시국산업으로의 전환을 장려한다. 또 1940년 10월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의 결성 이후 중앙영화사업협회가 1941년 6월 동화봉공회(同和奉公會)로 개조되면서, 전국에서 시국강연회가 진행되었다. 그 일환으로 구타미 지역에도 만주사정 강연회와 영화회(映寫會) 등이 개최되면서 구타미개척단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구타미 지역에서 영화사업에 힘쓴 이들은 지역의 유지들이었고, 구마모토현 사회과(社會課)는 중앙영화사업협회·만주이주협회·농촌개생협회 등의 주축로 구타미에서 50일간에 걸친 장기 강습회를 열어 만주이민을

독려하기도 했다. 여기에 참가한 구타미 지역 마을지도자들은 만주를 시찰하고 돌아와 열렬한 만주이민 전도자가 되었는데, 선전문구는 “이주 첫 해에는 식량과 의류 등 무상배급, 개척자금은 20년 변제로, 20정보(6만평)의 지주가 된다”는 것으로 부락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었다.

1937년 후반부터 척무성과 농림성은 만주이민에 ‘분촌이민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가 구타미였다. 앞서 언급한 강습회에서 교육을 받고 만주 시찰을 다녀온 마을지도자들에 의해 구타미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구타미개척단 계획이 결정되었는데, 송출호수 70호로 구타미 지역의 절반에 해당했다. 개척단의 명칭은 당초 단장인 미야모토 시게루(宮本茂)의 이름을 딴 ‘미야모토개척단(宮本開拓團)’이었으나, 단장 미야모토가 대동아성축탁개척단지도원 만주주재(大東亞省囑託開拓團指導員滿洲住在)로서 구타미개척단(來民開拓團) 단장이 되어, ‘구타미개척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선발대가 출발한 것은 1941년 5월이었다.

여기서 또 시선을 돌려 이민송출을 위해 1935년 조직된 만주이주협회(滿洲移住協會)와 만주척식주식회사(滿洲拓植株式會社)에 대한 서술이 이어진다. 만주척식주식회사는 공사(公社)로 바뀌면서 일본정부와 만주국의 지원과 함께 만철, 동척 등의 국책회사, 그 밖에 미쓰비시(三菱), 미쓰이(三井) 등의 재벌이 출자했다. 만주국 정부는 중앙 국무원과 각 성현에 토지정비위원회를 설치해 토지를 정비하고 이를 만주척식공사가 매수했는데, 필요할 경우 반강제로 군사력 동원해 매수를 강행해 중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이처럼 만주국과 만주척식공사는 이미 많은 토지를 확보하였고, 구타미개척단이 이주한 지역의 토지도 이렇게 마련된 것이었다.

다시 구타미개척단의 이야기로 돌아와, 구타미 지역에서는 1941년 선발대 파견, 1942년 4월 제1차 본대 37가족 150명, 1943년 제2차 본대 130명, 1944년 4월 제3차 본대, 1949년 4월 제4차 본대가 이주했다.

5장 개척 : 만주로 이주한 개척단이 현지에 정착하여 토지를 경작한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만주로 파견되어 이민촌을 시찰한 지도원들은 이주민들이 광대한 토지개척에 대한 열기가 높았던 점이 인상 깊었다는 증언을 남기고 있다. 만주의 넓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일손이 부족하고 일본식 집약농업이 부적당하다는 점 때문에 일본인 이주자들은 인근 마을의 중국인들에게 농업방식을 배우거나 중국인 쿨리(苦力)를 고용해 경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인 쿨리들의 비참한 생활이 자신들의 이주 때문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저자는 일본에서 차별받고 가난하게 살던 이들이 만주에서 중국인 노동자를 휘하에 부리며 마치 권력을 얻은 것처럼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다고 회고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구타미개척단 2차분대는 1943년 4월 출발할 때는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으로 바다 건너 부산에 도착한 후 철도편으로 이주지에 도착했다. 이때쯤엔 만주개척단에 응모하면 수속도 간단하고, 몸만 가면 될 정도였다는 증언도 있다.

6장 이룰 수 없는 꿈 : 구타미개척단이 만주로 이주하기 전후 시점의 지역정세와 함께 개척단원들의 평화가 차츰 깨지는 과정을 서술한다. 1939년 만주 국경에서 관동군이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외몽고와 충돌한 ‘노몬한 사건’이 일어나 관동군은 큰 타격을 받았으나,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으로 일본과 소련은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 후 일-소 중립조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일본은 소련과 개전을 준비하며 군비를 증강했다. 물론 구타미개척단 사람들은 이런 전황을 알 리 없었다.

선발대가 구타미를 출발한 반년 후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었다.(이후 태평양 전쟁의 진행과정 서술) 구타미개척단은 관동군이 자신들을 지켜 주리라고 확신했다. 이들에게는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등이 전혀 없어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전황이 악화된 소식도 모른 채 “천하태평이었다”고 한다. 그들에게엔 오로지 공동경작 기간이 끝나는 5년 후 자기 땅이 될 경작지 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개척단원들은 일본에서 처했던 가난한 생활에서 탈

출하고 차별에서 해방된 기쁨을 만끽하며 일본군이 패배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일본군의 패전과정, 관동군의 배치 변경 등 서술)

전황의 악화는 평화롭던 구타미개척단에도 영향을 미쳐 관동군에서 소집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1944년 4월 4차본대가 이주했다. 당시 일본 내지에서조차 ‘무적관동군’의 신화를 믿고 일본보다 만주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일반국민은 전쟁 상황에 대한 정보가 어두웠고, 전쟁으로 인해 일본 내지에서 식량부족을 겪었던 이들은 만주에 가면 식량 걱정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만주이민을 결심한 경우가 많았다.

전황의 열세와 함께 만주의 개척단에서 병사로 현지소집되는 이주민이 많아졌는데, 이웃 구로카와개척단(黒川開拓團)에서 구타미개척단의 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한 한 교사는 자신이 중국인들로부터 불안한 시국에 대한 정보를 얻어들었던 것과는 달리, 구타미개척단 사람들이 천하태평이었음을 이상하게 생각했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이하 현지소집 당했던 이들의 사례 서술)

7장 비극 : 구타미개척단의 집단자결 후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일본의 패전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패전과 동시에 구타미개척단은 이웃마을 중국인들의 습격을 받았고, 개척단원들은 중국인에 맞서 싸우다 힘이 다하여 전원 자결을 선택했다. 이 때 혼자 살아남았던 미야모토 사다요시(宮本真喜)는 중국인들의 눈을 피해 근처의 구로카와개척단에 몸을 의탁했는데, 이곳도 중국인들에게 습격당했다. 구로카와개척단은 관동군이 떠날 때 남겼던 무기 덕택에 구타미개척단의 전철을 밟지 않고 무사했다.(이하 징집당해 전선으로 가다 일본의 패전소식 듣고 되돌아 온 사례, 탈출한 사례 등 서술)

1946년 9월 미야모토와 구타미개척단의 다른 생존자들은 고향 구타미로 돌아와 유가족과 친지들에게 보고회를 열고 집단자결의 진상을 설명했다. 유가족 중에는 집단자결 소식을 믿지 못하고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고, 1946년부터 라디오에서 방송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에 줄곧 관심을 갖기도 했으나 허사였다. 생존자들은 중국어에 능통했던 구타미 소학교 교장이 살아있었으면 중국인들과 교섭을 통해 집단자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는데, 구로카와개척단이 설립한 학교에서는 이민자들에게 중국어를 교육한 반면, 구타미개척단에서는 농사를 도와주는 중국인 클리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이 차이가 두 개척단의 운명을 가른 하나의 요소라고 보기도 한다. 미야모토는 귀국 후 온갖 직업 전전하다 말년에 고향에 돌아와 지역문화센터 관리인으로 일했는데, ‘구 구타미개척단원(舊來民開拓團員)’이라는 글자를 새긴 명찰을 달았다고 한다. 그는 1982년에 사망했다.

8장 거짓의 땅 : 전쟁 시기 만주이민을 선전했던 일본정부의 융화사업이 내건 환상을 ‘거짓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서술한다. 여기서 거짓의 땅이란 만주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을 가리키기도 하는 중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쇼와공황에 의해 피폐한 농촌의 구제와 5·15사건 이후 사회적 불안의 대응책으로 정부는 구제책을 수립하였다. 각 지방에 사업시설비를 집행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고, 정부시책에 따라 ‘부락경제갱생운동(部落經濟更生運動)’을 결의하고 자력갱생 운동을 펼친 중앙융화사업협회의 영향력이 더 크게 파급되었다. 이에 따라 축산 장려, 자급비료 제조, 미곡 증산 등 집약적 농업 추진, 부채제조, 양잠 등 부업생산수입 증대, 생활개선에 의한 소비절약, 저축조합 설립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중일전쟁에 의해 피혁의 수입이 제한되고 중국에서의 원료수입도 곤란해져, 피차별부락의 피혁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1939년 국가총동원법이 나오고 통제경제가 진행되자 피혁산업도 군수물자공급 체제로 변환하면서 민간피혁사업은 위축되고 실업자가 속출했다. 이때는 전국수평사도 운동방침을 변경해 전쟁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고, 중앙융화사업협회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중앙융화사업협회는 전시체제가 강화와 함께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해 만주이민 사업에 나섰고, 특별지도구역 25곳을 선정해 강습회 등을 열고 부락지도자들을 만주이민의 선봉으로 양성했다. 이 지도구역 중에 구타미 지역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중앙용화사업협회가 제 땅 없이 과중한 소작료에 시달리던 피차별부락민들에게 선전했던 환상은 “만주로 이주하면 20정보의 광대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과 “일본 내지에서와 같은 차별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었다. 전쟁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당시 일본에서는 피차별부락의 과잉농가를 만주에 보내기 위해서라도 구타미개척단은 성공사례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9장 유골 없는 묘비 : 남은 이들의 이야기이다. 개척단에서 복귀한 사람들의 삶은 일본에서도 순탄치 않았다. 개척단원들은 일본에 있던 집과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떠난 것이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 돌아왔을 때 맨몸뚱이로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탄광과 신칸센 건설현장 등에서 날뎠다. 그런 가운데서도 1948년부터 합동으로 희생자를 추모하는 모임을 가졌다. 사실 그 비용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1952년에 스스로의 힘으로 공양탑을 세웠고, 이것을 계기로 유족회와 구타미 지역 사람들은 합동으로 매년 집단자결이 있었던 8월 17일을 기일로 위령제를 지냈다.

부락민과 유족들은 구마모토현 원호과, 후생성, 외무성 등에 희생자의 유골 수집을 진정했고, 1978년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 후, 1980년 후생성은 중국에 ‘정부파견중국동북지구사물자위령우호방중단(政府派遣中國東北地區死沒者慰靈友好訪中團)’을 보냈다. 유족과 복귀개척단원들이 전후에 구타미개척단이 있던 자리에 갈 수 있게 된 것은 1981년 5월이었다. 이미 그곳은 세월의 흐름으로 많이 변했고 희생자들은 묘비도 없이 매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유골의 수집은 저자가 책을 집필하던 1994년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구타미개척단의 이야기이고, 이후 저자는 만주이민에 대한 평가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부락민에 대한 차별발언을 소개한다.

만주이민은 ‘오족협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소련에 대한 국방과 병참기지의 역할을 담당하며, 일본 내지 농촌의 토지부족과 기아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종전과 동시에 그들은 국가로부터 버려져 방치되었다. 아울러 구타미개척단의 비극은 융화사업의 선전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주에 건너가면 ‘20정보의 지주’가 되고 차별로부터의 ‘해방’된다는 감언이설은 열악한 처지에서 차별받던 피차별부락민들을 유혹하는 환상이었다. 하지만 만주이민이 중국의 식민지 지배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하며 구타미개척단도 예외는 아니다. 구타미개척단이 꿈꾸던 지주와 차별로부터 해방은 중국인의 토지를 빼앗고 중국인을 부리며 차별하는 위치에서 부락차별이 해소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만주에 살면 차별은 해소된다’는 선전은 그들을 만주로 보내기 위한 구실이자, 부락차별을 민족차별로 은폐한 거짓해방일 뿐이었다.

그런데 만주이민을 실제로 추진했던 가토 간지는 1966년 간행된 『만주개척사(滿洲開拓史)』의 서문에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이나 이민집행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또 1986년 구마모토현에서는 구타미개척단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여전히 나오고 있었다. “구타미개척단이 희생자라고는 하지만, 피차별부락 녀석들은 어린이와 여자, 심지어 부모도 죽이는 잔인한 놈들”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피차별부락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으로 저자는 자신의 브라질 이민 경험을 바탕으로 브라질 일계인들의 처지에 대해 언급한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노동력부족과 브라질의 불황 등 요인이 중첩해 중남미 일계인의 환류현상이 일어난 이래, 1990년 입관법의 개정으로 일계인의 입국이 허용되어 브라질, 페루, 파라과이 등에서 일계인 20만 명이 역류했다. 그 와중에 일본의 버블경제가 붕괴하고 호경기가 지나가자 일계인을 둘러싼 불온한 움직임과 함께 각지에서 외국인 배척 움직임이 생겨났다. 시즈오카현(靜岡縣)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하는 뼈라가 뿌러지기도 했던 사례를 소개한다.

마무리로 저자는 구타미개척단의 역사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한 그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새로운 차별이 생겨난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 275명의 희생자를 낸 구타미개척단의 비극을 교훈으로 삼기 위해 역사를 정확하게 전하고 모든 차별을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후기 : 저자는 중학교 시절 같은 학교의 재일조선인 여학생이 조례 시간에 읽었던 작문의 내용을 소개하며, 그 사례가 일본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인식한 최초의 계기였다고 회고한다. 고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해야 했던 그 여학생이 이력서를 제출할 때 날품팔이었던 부친의 직업을 공란으로 남겨두었던 일을 후회하고 부친에게 사과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 후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락문제나 일본 내에서 소외받는 이들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프롤로그에서 밝혔던 것처럼 브라질 이민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온 후 결혼차별사건을 취재하면서, 20여년 전 브라질 이민을 앞두고 만났던 청년이 “실연해서 브라질에 이주한다”던 말을 생각내며, 그 청년이 말했던 ‘실연’이란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불신감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한다. 또 저자는 구타미개척단 뿐만 아니라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수없이 해외로 떠나간 이민자들의 ‘땅에 묻힌 역사’를 발굴해야 한다는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며 글을 맺는다.

III

이상으로 『절망의 이민사-만주로 파송된 ‘피차별부락’의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책 이전에 일본인의 만주이민과 만주개척단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개별 논문은 물론 단행본으로도 만주개척단과 농업이민에 관한 연구와 이민자 혹은 귀국자의 회고록 등의 형태로 출판된 바 있어, 전에 없던 새로운 주제라고 할 수는 없다.¹⁷⁾ 그렇다면 이 책이 기존

만주개척이민 연구논문 혹은 연구서와 구별되는 특징은 어디에 있을까. 만주개척단의 주요사업은 농업이민이었고, 모집대상도 일본 각지의 농업종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개척단원 가운데 농촌출신자의 상당수가 일본 내에서 가난한 소작농으로 힘겨운 삶을 꾸려가던 처지였던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만주개척단에는 농촌지역의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사회에서 차별받던 이른바 소수자(마이너리티) 집단인 피차별부락민과 재일조선인, 홋카이도(北海道)의 아이누, 오키나와인(沖繩人) 등 다양한 인간군상이 모여들었다. 이처럼 소외된 집단이었던 만주개척단에서조차 이중으로 소외된 피차별부락민에 집중해, 오랜 세월 묻혀버렸던 구마모토현 구타미개척단의 비극적 실상을 재조명한 점이야말로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라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자는 후기에서 “구타미개척단 뿐만 아니라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수없이 해외로 떠나간 이민자들의 ‘땅에 묻힌 역사’를 발굴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후 일본에서는 만주개척단원 관련 연구만 해도 홋카이도 출신 아이누 지도자의 체험담,¹⁸⁾ 식민지조선의 조선인만

17) 『절망의 이민사』(1995) 출판 이전에 일본에서 나온 만주개척이민 관련논문은 검색사이트 (<http://ci.nii.ac.jp>)에 올라온 것만 약 30여 편 이상이며, 단행본도 4권정도 있다. 만주 분촌 이민의 대명사격인 오히나타촌(大日向村) [현재 나가노현(長野縣)의 사쿠호마치(佐久穂町)]의 경우는 만주개척이민의 모범적 사례로, 이주 당대부터 소설이나 영화 등의 소재로 자주 등장했다. 소설로는 와다 쓰토(和田 傳)가 1939년에 발표한 『오히나타촌(大日向村)』이 유명하다. 와다는 1937년 당시 정부가 농업장려라는 국책의 달성을 위해 농상(農相)을 고문으로 삼고 문화가 40여 명을 위촉해 결성한 ‘농민문학간담회[農民文學懇話會]’에 참여하여 농촌을 무대로 한 다수의 국책 농민문학 작품을 발표한 유명 작가이기도 하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1940년 일본의 메이지 영화사인 도호(東寶)주식회사가 <오히나타촌(大日向村)>이라는 제목의 국책영화를 제작한 바 있다.(杉林隆, 2003, 『昭和戦時期の日本映畫 - 監督と映像表現』 鳥影社 참조)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1986년 4월에도 <오히나타촌의 46년 - 만주이민 · 그 후의 사람들(大日向村の46年 - 滿州移民 · その後の人々)>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었다. 이후 2005년 9월 2일 일본 후지TV에서는 제14회 FNS(후지 네트워크 시스템) 다큐멘터리 대상(大賞)후보에 오른 작품인 <오히나타개척 이야기(大日向開拓物語) - 만주 그리고 가루이자와(滿州)そして輕井澤> [제작 : 나가노(長野) 방송]를 방영하기도 했다.

18) 具澤 正, 1993, 『アイヌわが人生』 岩波書店. 만주개척단에 입단해 만주로 건너갔다 귀국한 홋카이도 아이누인 지도자 가이자와 다다시(1912~1992)의 유고집이다. 가이자와와의 연보에 따르면, 그는 27세였던 1940년 9월 동생과 함께 아바라키현(茨城縣)의 청소년의용군간부훈련소에 입소해 훈련받던 중 1941년 척무성만주이주협회를 통해 개척단의 소개를 받고 개척단에 들어갔다. 같은 해 6월 니가타항(新潟港)을 출항해, 만주에 도착한 지 3개월

몽개척단과 청소년의용군에 대한 연구,¹⁹⁾ 오키나와현 요미탄손(讀谷村) 도케시(渡慶次) 출신 이주민의 증언²⁰⁾ 등 여러 연구 성과들이 속속 등장했다. 저자 다카하시가 피차별부락 구타미개척단의 비극적 최후인 ‘집단지결’ 사건을 관련자 증언 등의 사후조사로 조명한 데 반해, 패전 직후 만주개척단원들의 비참한 생활을 몸소 체험한 사카모토 가쓰히코(坂本龍彦)의 『집단지결 - 버려진 만주개척민』(2000)²¹⁾도 출간되었다. 저자 사카모토는 피차별부락민을 특별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의 난민수용소 경험과 당시 개척단원의 집단지결을 도왔던 당사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일본인 만주개척단원 가운데 지도자를 잃고 남겨진 부녀자와 어린이들이 집단지결로 내몰린 진상을 추적했다.²²⁾ 사카모토는 생존한 개척단원들의 전후(戰後) 행보를 더듬

만에 만주개척단 내에 존재하는 민족차별 행태(아이누인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에 환멸을 느끼고 개척단을 떠나 만몽척식공사의 잡역부 등으로 일하다 건강이 악화되어 고향으로 귀국했다. 자세한 내용은 16~22쪽 참조.

19) 陳野守正, 1998, 『歴史からかゝされた朝鮮人滿州開拓団と義勇軍』 梨の木舎. 이 책은 일본에서 나온 만주개척단 관련 연구 가운데, 관동군이 주도하고 조선총독부에 의해 송출된 식민지 조선인만주개척단과 의용군을 다룬 드문 연구 성과이다. 이 분야로 최근 한국에서 나온 연구 성과는 신주백, 2012, 『한인의 만주 이주 양상과 동북아시아』 『역사학보』 213. 참조;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옛 청사 관리처에서 출간한 『<신보> :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기사 선집(1910~1946)』에서 임시정부 관계기사를 제외한 한국 기사를 총망라하여 번역, 출판한 자료집(석원화·심민화·패민강 편, 김승일 번역, 2011, 『중국인론 신보에 그려진 한국근현대사』 역사공간) 가운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조선 농민의 대규모 만주 이민 계획 관련 기사 부분 참조.

20) 오키나와현(沖繩縣) 요미탄손(讀谷村) 도케시(渡慶次) 공민관(公民館)의 홈페이지에는 전전(戰前) 도케시 지역에서 이민 혹은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주민들의 사례를 『요미탄손사(讀谷村史) - 자료편』의 기사에서 발췌해 게재하고 있다.(<http://tokeshi.ezlog.jp/azashi/050286.html>) 이 홈페이지의 기사는 남양군도, 대만, 만주 등으로 이주했던 이들의 성명, 출신지 등이 상세히 기록된 명단을 제시하고 있다.

21) 坂本龍彦, 2000, 『集團自決 - 棄てられた滿州開拓民』 岩波書店.

22) 저자 사카모토 가쓰히코(坂本龍彦)가 출판사에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사카모토는 1933년 야마나시현(山梨縣) 출생으로, 부모를 따라 만주로 건너간 후 1945년 패전 당시 하얼빈의 구제 중학교 학생이었다. 패전과 함께 곧 소만(蘇滿) 국경 주변부에 있던 만주개척민들이 소련군이나 중국인 현지민에 쫓겨 하얼빈에 모여 들었다. 사카모토의 아버지는 만주개척촌의 초등학교 교장이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현지민의 공격을 피해 하얼빈의 난민 수용소에 도착했다. 이 난민수용소에서 개척단 난민들이 수없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나갔고, 실제로 사카모토는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시체를 신고 가는 트럭을 쫓아가 중국인들 몰래 매장하는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다고 한다. 12세 소년 시절에 겪었던 그 ‘부조리한’ 상황의 강렬한 기억을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잊지 못한 사카모토는 결국 그 비참한 사건의 진상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으며 “타국을 침략하고 자국민을 ‘버리는’ 일본이란 국가의 군대와 정치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사카모토의 문제의식과 연결되는 주제로 ‘중국잔류일본인’ 혹은 ‘중국잔류교아’에 대한 문제도 있다. 중국잔류일본인은 만주를 비롯한 중국 각지로 이주해 왔다가 전쟁 말기 소비에트 연방의 만주 진주와 관동군의 퇴각 등으로 인해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본인들을 가리킨다.²³⁾ 중국잔류교아가 가운데 일본으로 돌아온 이들은 2002년 12월 일본 정부를 피고로 도쿄(東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가 637명이라는 보기 드문 대규모였다. 원고의 변호단도, 도쿄나 인근 현(縣)에서 약 150명이 조직되었고, 이 소송은 홋카이도나 나고야(名古屋), 교토(京都), 히로시마(広島), 후쿠오카(福岡) 등에서도 제소될 방침이었다. 원고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 (1) 정부가 전후에 중국에 있었던 주민들을 ‘기만’한 것
- (2) 교아 등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1959년 ‘전시사망선고(戰時死亡宣告)’ 제도에 의해 교아 등에 ‘법적 사망선고’를 내린 것
- (3) 귀국 후에도 교아 등에 생활 지원 대책을 충분히 원수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피고인 국가는 “제소 자체가 부당하고, 사실을 인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도쿄에서의 소송소식이 전해진 후 이듬해인 2003년 8월에 가고시마에서 21명, 9월 새로 도쿄에서 330명, 나고야에서 141명, 교토에서 90명, 히로시마에서 51명이 소송을 제기해 총 원고의 수는 1262명이 되었다. 그 후에도 전국 15개의 지방법원에 약 2200명의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러한 동시다발적 소송의 진행 결과 법원의 판결이 서로 엇갈리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2006년 12월 고베(神戸)지방법원은

23) 중국잔류교아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2000년대 들어 집중적으로 나와 단행본만 해도 10여권 이상 된다. 지면 관계상 자세한 목록은 생략하지만, 이들의 국가소송과 관련된 자료로 大久保真紀, 2004, 『あゝわが祖國よ-國を訴えた中國殘留日本人孤兒たち』 八朔社; 白石恵美, 2008, 『「中國殘留孤兒」歸國者の人權擁護: 國家という集團と個人の人權』 明石書店; 菅原幸助, 2009, 『「中國殘留孤兒」裁判-問題だらけの政治解決』 平原社. 등 참조.

원고인 중국잔류고아들의 손을 들어주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반면, 이듬해 2007년 1월 도쿄 지방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처럼 사법부의 판결조차 오락가락하던 와중에 2007년 4월 29일 일본정부는 ‘중국잔류고아’에게 국고 부담으로 기초(국민)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특례를 만들 것이라 발표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소송 이전에 중국잔류고아들이 받고 있던 생활보호 대신 특별급부금 제도를 신설해 최장 40년간 기초연금 보험료를 면제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귀국 후 60세까지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한편, 이들이 받을 보험료도 인상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중국잔류고아의 손해배상 소송은 일단락되었다.²⁴⁾

사실 일본인 해외이주민과 2,3세 귀국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남미 이민자, 특히 도미니카 이민자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다. 저자 다카하시는 이 문제에도 깊이 관여해 2001년 3월 아시아 작가 클럽(AWC)의 기관지에 ‘도미니카 이민문제로 본 일본의 이민정책’이란 글을 기고해 일본인 도미니카 이민문제에 관한 실태를 고발하는 한편 일본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²⁵⁾ 앞서 소개한 것처럼 다카하시는 오래 전부터 남미 일계 이민자들에 대한 일본사회의 관심을 환기해 왔고, 그가 일본정부에 대한 도미니카 이민자 2,3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극 참여한 것도 자신의 브라질 이민 체험이라는 개인사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본 서평의 대상인 『절망의 이민사』(1995) 발표 후에도 저자는 피차별부락민이 일상적으로 겪는 ‘결혼차별’ 실태를 취재한 『사랑이 깨졌을 때 - 추적 르포·결혼차별』(1996),²⁶⁾ 일계인 이민의 역사를 개설한 『일계인, 이민의 역사』(1997)²⁷⁾를 출간했다. 이처럼 1987년부터 1997년까지 10여 년간 한 해도

24) ‘중국잔류고아’의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일본 법학관헌법연구소(法學館憲法研究所) 사이트에 게재된 <헌법관련재판정보(憲法關連裁判情報)> (http://www.jicl.jp/now/saiban/backnumber/china_1.html) 기사 및 사건관련 신문 보도 등 참조.

25) 高橋幸春, 2001, 『ドミニカ移民問題から見た日本の移民政策』 『月刊 Rickshaw』 2001년 3월호(통권 제29호) 정례회보고(제42회 2001.1.27)

26) 高橋幸春, 1996, 『愛が引き裂かれたとき - 追跡ルポ・結婚差別』 解放出版社.

거르지 않고 매년 성과를 내며 왕성히 집필활동을 했던 저자가 1997년 이후로는 약 3년간 별다른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2000년에 저자는 오랜 침묵을 깨고 그동안 사용했던 ‘다카하시 유키하루’라는 이름 대신에 ‘아사노 료(麻野涼)’라는 필명으로 첫 소설 『천황의 배(船)』²⁸⁾를 발표했다.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종전 후부터 1988년에 이르기까지 브라질과 일본을 무대로 넘나들며 이민자의 살인 사건을 줄거리로 삼아 ‘쇼와(昭和)이민사’의 그늘을 파헤치는 내용인지라, 소설가로서 첫 데뷔인 동시에 저널리스트 다카하시의 귀환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그 후 다시 약 3년 간 작품을 내지 않다가 북한공작원이 일본인으로 행세하며 위조지폐를 소지하고 파라과이의 구치소에서 자살한다는 테마로 일본과 평양, 서울과 브라질로 무대를 넓혀가며 전개되는 내용의 『국적불명(상·하)』(2003)²⁹⁾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스독일이 운영하던 아우슈비츠수용소에서 끔찍한 인체실험을 자행해 ‘죽음의 천사’란 악명을 얻었던 요제프 멩겔레(Josef Mengele)가 전후 파라과이를 거쳐 브라질로 도피해 살다가 1985년 사망했는데, 그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브라질과 폴란드 바르샤바를 무대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어둠의 묘비명』(2006)³⁰⁾을 내놓았다. 이듬해에는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은폐사건에 가담

27) 高橋幸春, 1997, 『日系人その移民の歴史』 三一書房.

28) 麻野涼, 2000, 「天皇の船」 文藝春秋. 이 책에서 다루는 살인사건은 1945년 종전 후 브라질 일계인 사회에서 실제 발생했던 ‘신도연맹사건(臣道聯盟事件)’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당시 일계인 사회는 “일본은 전쟁에 이겼다. 천황의 배(船)가 우리들을 맞이하러 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품었던 ‘승리조(勝ち組)’와 전쟁에 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패배조(負け組)’로 나뉘어 10여 년간 격렬하게 대립했다. 이 때문에 양측 일계인들 사이에 테러, 린치, 암살사건 등이 잇달았고 폭력사건으로 체포된 인원만 2천여 명에, 23명의 사망자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을 다룬 연구서(太田恒夫, 1995, 『日本は降伏していない—ブラジル日系人社會を揺るがせた十年抗争』 文藝春秋)가 『절망의 이민사』가 출판된 같은 해에 나왔고, 2011년에는 재일 한국인 3세 일본인 배우 이하라 쓰요시[伊原剛志, 한국명 윤강지(尹剛志)] 등이 주연한 <더러운 마음(Corações Sujos)>이란 브라질 영화가 제작되어 이듬해 2012년 일본과 브라질에서 순차로 개봉되었다.

29) 高橋幸春, 2003, 『國籍不明(上·下)』 講談社.

30) 高橋幸春, 2006, 『闇の墓碑銘』 徳間書店.

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브라질로 도피한 젊은 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GENERIC』(2007)³¹⁾에 이어, 본 서평 대상인 『절망의 이민사』(1995)의 내용을 소설로 바꿔 쓴 『만주<피차별부락>이민』(2007)³²⁾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음해에는 일본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일제 이민자의 살인사건을 소재로 신문기자인 주인공이 쇼와이민정책의 어두운 면을 추적하는 내용인 『이민의 계보』(2008)³³⁾를 내놓았다. 최근작으로는 무고한 건설현장 노동자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고, 그의 딸이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려 사건의 진상을 추적해가는 이야기를 소재로 다룬 『오심(誤審)』(2008)이 있다.

이상의 작품목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87년부터 다카하시라는 필명으로 발표했던 르포 성격의 작품이나 2000년부터 아사노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에 이르기까지, 형식이나 다루는 소재는 달라졌어도 저자의 작품에 일관되게 흐르는 해외이주민과 소외된 소수자 집단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저자가 그간 일본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상황에 대해 보여준 예리한 시선이 이제는 대형의료기관이 은폐하려는 의료사고, 사회적 약자가 공권력에 무고하게 짓밟히는 법원의 오심문제 등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의 어두운 치부를 과감히 드러내며 ‘땅에 묻힌 역사’를 발굴해온 저자의 다음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궁금하다.

투고일 : 2012년 10월 31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18일

31) 高橋幸春, 2007, 『GENERIC』 徳間書店.

32) 高橋幸春, 2007, 『満州<被差別部落>移民-あの南天の木はまだあるか』 彩流社.

33) 高橋幸春, 2008, 『移民の譜-東京・サンパウロ殺人交点』 徳間書店.